

제주지역 농협하나로마트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고성보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e-mail: ksb5263@jejunu.ac.kr

Analysis of Hanaro Mart's contribution to the local economy of Jeju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Seong-Bo Ko

Dept. of Applied Economics i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제주지역은 농림어업이 지역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11.0%로 전국 1.9%의 5.7배로 1차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런데, 제주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는 도내 농식품 유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하나로마트의 대형마트 역할로 인해 주변 상권을 흡수하게 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농협하나로마트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016~2020년 5년동안 지역경제에의 기여도는 첫째, 매출액(농축수산물+공산품) 합계는 농축수산물 1조 831억원, 공산품 1조 796억원 등 총합계 2조 1,627억원이고, 둘째, 건축투자비 등 초기투자액은 1,449억원, 셋째, 지방세와 공과금 납부액은 161억원, 넷째, 광고선전비 등 판매촉진비 62억원, 다섯째, 총 고용창출 효과는 정규직 1,130명, 비정규직 3,272명으로 총 4,402명이고, 이로 인한 총급여소득은 정규직 571.7억원, 비정규직 869.6억원 등 총 1,441.2억원으로 나타났다.

1. 서론

제주지역은 농림어업이 지역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11.0%로 전국 1.9%의 5.7배로 1차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4].

그런데, 제주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는 도내 농식품 유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하나로마트의 대형마트 역할로 인해 주변 상권을 흡수하게 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는 김광민(2017)의 “대형유통점 진입과 지역경제 상생방안”[1], 조규호(2014)의 “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청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2], 김병률 외(2015),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3] 등이 있으나,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분석이 이뤄진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농협하나로마트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 제주지역 농협하나로마트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2.1. 하나로마트의 농축수산물등 매출액 증대 효과

하나로마트의 전체 취급품목(농축수산물+공산품)의 연도별매출액은 2016년 3,705.6억원에서 증가해 2018년 4,224.9억원으로 4천억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5,271.6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6~2020년 5년동안전체 취급품목(농축수산물+공산품) 매출액의 합계는 농축수산물 1조 831억원, 공산품 1조 796억원 등 총합계 2조 1,627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1> 하나로마트의전체 취급품목의 매출액 (단위: 백만 원)

연도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총합계
2016	180,394	190,166	370,560
2017	191,714	198,006	389,720
2018	209,367	213,123	422,490
2019	227,527	225,300	452,827
2020	274,100	253,056	527,156
총합계	1,083,102	1,079,651	2,162,753
평균	216,620	215,930	432,550

자료 : 제주지역농협 및 감귤농협의 내부자료임

2.2. 하나로마트의 초기 투자액 증대 효과

하나로마트의 24개 사업장중 임대사업장 1개소를 제외한 23개 사업장은 자가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자가사업장(구좌농협하나로마트본점등 23개)의 사업초기 투자액은 토지구입비 466.7억원, 건축비 777.2억원, 시설자재비(인테리어 포함) 204.7억원 등 총 1,449.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장(서귀포시축협하나로마트1개)의 사업초기 투자액은 시설자재비(인테리어 포함) 10억원이며, 임대료(연간)는 0.68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2> 하나로 마트의 초기 투자액 증대 효과 (단위: 백만 원)

유형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자재비 (인테리어 포함)	임대료 (연간)	합계
자가사업장 (23개사업장)	46,672	77,724	20,470	67	144,932
임대사업장 (1개 사업장)	-	-	1,000	68	1,068
합계	46,672	77,724	21,470	135	146,000

자료 : 제주지역농협 및 감귤농협의 내부자료임

2.3. 하나로마트의 지방세와 공과금 납부 증대 효과

하나로마트의 지방세(재산세+주민세+기타 세금)와 공과금(전기+수도료+기타 공과금)납부 효과를 보면, 2016년 26.7억원, 2017년 28.4억원, 2018년 32.8억원, 2019년 35.8억원, 2020년 36.9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6~2020년 5년 동안 하나로마트의 지방세와 공과금 납부의 총효과는 재산세 11.3억원, 주민세 3.9억원, 기타세금 0.9억원, 전기+수도료 143.3억원, 기타공과금 1.5억원 등 총 160.8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3> 하나로 마트의 지방세와 공과금 납부현황(최근 5개년) (단위: 백만 원)

연도	재산세	주민세	기타 세금	전기+ 수도료	기타공 과금	합계
2016	135	51	8	2,474	8	2,676
2017	160	52	8	2,534	92	2,847
2018	242	67	14	2,948	14	3,284
2019	290	108	22	3,137	24	3,581
2020	302	109	36	3,236	11	3,694
합계	1,129	388	88	14,329	149	16,083

자료 : 제주지역농협 및 감귤농협의 내부자료임

2.4. 하나로마트의 판매촉진비 지출 효과

하나로마트의 광고선전비 등 판매촉진비 지출추이를 보면, 2016년 8.7억원, 2017년 11.7억원, 2018년 13.2억원, 2019년 13.3억원, 2020년 15.3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6~2020년 5년 동안 총 광고선전비 등 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 20.5억원, 행사마케팅비 34.5억원, 기타비용 7.1억원 등 총 62.2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4> 하나로 마트의 판매촉진비 지출 효과 (단위: 백만 원)

연도	광고선전비	행사마케팅비	기타비용	합계
2016	259	503	104	865
2017	448	602	118	1,168
2018	411	773	142	1,327
2019	442	731	153	1,326
2020	494	844	194	1,532
합계	2,053	3,453	712	6,219

자료 : 제주지역농협 및 감귤농협의 내부자료임

2.5. 하나로마트의 고용인력 및 인건비 증대 효과

하나로마트의 지역인력 고용창출 효과는 2016년 698명(정규직 190명+비정규직 508명)에서 점차 증가해 2020년 천명을 돌파해 1,032명(정규직 264명+비정규직 768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6~2020년 5년 동안의 총 고용창출 효과는 정규직 1,130명, 비정규직 3,272명으로 총 4,402명으로 나타났다.

하나로마트의 지역 고용인력의 급여소득은 2016년 212.6억원, 2017년 243.2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370.7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6~2020년 5년 동안의 총급여소득은 정규직 571.7억원, 비정규직 869.6억원 등 총급여소득은 1,441.2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5> 하나로 마트의 고용인력 및 인건비 증대 효과 (단위: 백만 원)

연도	고용인력				인건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상시근 무자	비상시 근무자			상시근 무자	비상시 근무자	
2016	190	425	83	698	8,850	12,212	204	21,266
2017	208	445	143	796	10,035	13,917	374	24,326
2018	215	481	192	888	11,112	16,636	548	28,296
2019	238	539	196	973	12,911	19,668	580	33,159
2020	264	582	186	1,032	14,256	22,270	549	37,075
합계	1,130	2,472	800	4,402	57,165	84,703	2,255	144,122

자료 : 제주지역농협 및 감귤농협의 내부자료임

3. 요약 및 결론

본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농협하나로마트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016~2020년 5년동안 지역경제에의 기여도는 첫째, 매출액(농축수산물+공산품)의 합계는 농축수산물 1조 831억원, 공산품 1조 796억원 등 총합계 2조 1,627억원이고, 둘째, 건축투자비 등 초기투자액은 1,449억원, 셋째, 지방세와 공과금 납부액은 161억원, 넷째, 광고선전비 등 판매촉진비 62억원, 다섯째, 총 고용창출 효과는 정규직 1,130명, 비정규직 3,272명으로 총 4,402명이고, 이로 인한 총급여소득은 정규직 571.7억원, 비정규직 869.6억원 등 총 1,441.2억원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1] 김광민, “대형유통점 진입과 지역경제 상생방안”, 한국은행 충북본부, 2017.
- [2] 조규호, “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청주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17권 3호, 2014.
- [3] 김병률 외,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연구보고 R7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김정인, “지방공기업특성과 경영성과 관계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농축산식품현황」, 2022.